

중국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모태복귀 신화

김 인 호*

— <目 次 —

- | | |
|----------------------|---------------|
| I. 서 언(모태복귀의 신화) | IV. 《枕中記》 분석 |
| II. 중국문화 속에 나타난 洞穴文化 | V. 《南柯太守傳》 분석 |
| III. 《桃花源記》 분석 | VI. 결 어 |

I. 서언(母胎복귀의 신화)

인간은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은 어머니 자궁, 즉 母胎로 복귀하려는 원초적인 욕망을 항상 지니고 있다. 자궁으로 돌아가고픈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은 문화 전반 곳곳에 드러난다.

무당이 발가벗고 자궁처럼 어두침침한 골방에서 태아처럼 웅크리고 몇 시간 동안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태에 있었던 태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표출된 행동이다. 원시인들은 穴居(동굴)생활을 했었는데, 이는 물론 짐승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는 자궁을 그대로 모방하여 거주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네 전통 한옥 가옥의 가장 중심되는 곳인 안방은 마당에서 볼 때, 조금 높게 그리고 깊숙하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자궁을 모방한

* 이 논문은 동의대학교 2005년 교내일반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동의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것이라고 한다. 자궁이란 전통가옥의 안방처럼 입구(질)로부터 조금 높게 깊숙하게 위치한 것이다. 인간은 자궁 속에 있을 때 본능적으로 가장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 거주 의 가장 중심 되는 곳(안방)도 자궁의 위치를 본능적으로 본받았다는 것이다. 죽어서 묻히는 陰宅을 墓穴(묘 구멍)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죽어서도 인간의 원초 상태인 모태로 복귀하고픈 욕망을 그려낸 것이다. 묘 자리를 점치는 지관들은 지세가 여자의 성기 모양을 갖춘 곳이 가장 명당자리이며, 묘는 그 구멍 즉 玉門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이것을 ‘갯이라고 표현 한다¹⁾. 우리나라에서는 마을을 00‘洞(구멍)이라고 하며, 자신의 마을을 洞內(구멍 안)이라고 하고, 자신의 마을 입구를 洞口(구멍 입구) 밖이라고 한다. 인간은 모태 속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마을을 00‘洞’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예나 지금이나 막론하고 많은 수도자들이 산의 동굴이나 토굴 속에서 穴居하며 수도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지금도 어떤 종교에서는 산의 토굴 같은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행하고 있다. 인도나 중국의 많은 불자나 힌두교 신자 그리고 도교의 추종자들이 산에 토굴을 뚫어 그 속에서 몇 년 동안 꼼짝도 않고 수도하는 것을 옛 전적이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알 수 있다. 많은 문헌이 발견되어진 돈황의 석굴도 스님들이 도를 닦는 곳이다.

그리고 모태로 복귀하려는 인간의 이런 무한한 욕망이 홍수신화를 만들어낸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이는 태아가 모태 속에 있을 때 양수(물) 위에 떠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하여 만들어낸 신화이다. 세계 각국에 홍수신화가 존재하는데, 노아의 홍수신화는 널리 알려진 것이요, 중국에서도 홍수신화가 존재한다. 이렇게 홍수신화가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노아의 방주처럼 물에 의해서 구원받은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은 자궁 속에 있을 때 양수(물) 위에 떠있다. 이 역시 양수 위에 떠있는 상태인 자궁

1) 최창조교수의 《한국의 풍수지리》 참조

속으로 돌아가고픈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 인간들로 하여금 홍수신화를 만들게 한 것이다.

II. 중국문화 속에 나타난 洞穴문화

중국의 신선 도사 방사들은 靈山の 동굴 속에 많이 기거하며 수도를 하였다. 이들이 동굴에 주로 기거했기 때문에, 이들이 거주하는 곳을 ‘洞天’ 혹은 ‘洞府²⁾’라고 불렀다. 《唐書·藝文志》에 “仙人들은 동굴에 거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고로 보통 그를 칭하여 洞僊이라 한다.(僊人好居洞壑 故普通稱之曰洞僊.)”라고 하고 있는데, 선인들을 ‘洞僊’ 이라고도 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선 도사 방사들이 영산의 동굴에 많이 기거하며 수도 했음을 나타내는데, 또한 그들은 그 곳에서 일반인을 위하여 도량을 열어 강학도 하였다³⁾.

도교의 경전에는 ‘洞’ 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도교의 최고 경전인 《三皇經》은 《玉清‘洞’真》·《上清‘洞’玄》·《太清‘洞’神》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洞’ 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道藏書에서 ‘洞’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洞’淵集》·《‘洞’淵北帝天蓬護命消災神咒妙經》·《‘洞’淵神咒》·《‘洞’玄錄》·《三‘洞’錄》·《‘洞’靈真經》·《‘洞’神經》·《三‘洞’瓊綱》·《大‘洞’真經》이 그것이다. 이 ‘洞’이라는 것은 모두 인간이 원초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모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의 많은 소설작품들에도 이 ‘洞’ 자나 ‘窟’ 자를 사용하며, 그 속에 사는 귀신들이나 신선 선녀들의 행적, 그리고 그 속에서의 선녀와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하는 《구운몽》은 남

2) 《宋史》에 “여러 명산의 洞府에서 金龍과 玉簡을 던져보내며 도량을 열었다.”(諸處名山洞府, 投送金龍玉簡, 開啓道場.)라고 하고 있는데, 당시 많은 신선 도사 방사들이 영산의 동굴에서 도량을 열어 강학을 했다.

3) 前注 참조.

자 주인공이 동굴 속에서 열 선녀와 환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洞仙傳》은 동굴에 기거하는 신선들의 행적을 서술한 唐 傳奇이다. 《漢武洞冥記》는 漢나라 사람 郭憲이 편찬한 것으로 漢 武帝 시대 동굴에 사는 신선들의 기괴한 행적을 기술한 작품이다. 京本通俗小說의 한 작품인 《西山一窟鬼》는 서산의 한 동굴에 사는 鬼의 행적을 기술하고 있다. 張鷟이 편찬한 唐 傳奇 《遊仙窟》은 한 남자와 열 선녀가 동굴 속에서 문답으로 歡談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搜神記》에 채록된 陽林의 이야기에서 陽林은 玉枕의 구멍(穴)으로 들어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다. 沈既濟의 《枕中記》는 盧生 이 주막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 자기가 배고 있던 배게 구멍(穴) 속으로 들어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다. 李公佐의 《南柯太守傳》에서는 淳于芬이 古槐의 구멍(穴) 속으로 들어가 개미나라 왕의 사위가 되어 30년 동안 南柯郡의 태수로 있으면서 온갖 공적을 쌓고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중국인들의 이상향을 그린 것으로 널리 알려진 陶潛의 《桃花源記》에서도, 어부는 좁은 굴(口)을 통하여 들어가 別有天地非人間의 武陵桃園을 만난다.

위의 작품 외에도 중국의 무수한 작품들이 동굴을 그리고 있으며, 그곳은 항상 인간이 그리는 Utopia 상태로 묘사되어 있다. 陽林의 이야기·《枕中記》·《南柯太守傳》·《桃花源記》 등의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모두 구멍(洞·穴·口·窟) 속에서 유토피아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모두 ‘窟’·‘洞’·‘穴’·‘口’ 등에서, 혹은 그 곳을 통해 들어가면, 신이나 鬼 혹은 선녀들이 사는 신비로운 세계를 만나거나, 혹은 그 곳에서 불노불사하거나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안하게 산다는 것이 일반적인 공통점이다. 이는 그 속이 항상 Utopia 상태로 인식된 것으로, 모태로 복귀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 문학화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 중국인의 이상향을 묘사했다고 널리 일컬어져 온 도연명의 《桃花源記》와 唐 傳奇인 沈既濟의 《枕中記》 그리고 李公佐의 《南柯太守傳》을 신화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桃花源記》 분석

중국의 대표적인 전원시인인 동진시대 인물 도연명이 지은 《桃花源記》는 중국인의 이상향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桃花源記》에서 도연명이 그린 무릉도원은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이상향으로 남아있다. 이런 도연명의 《桃花源記》를 신화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무릉도원 속에 담고 있는 중국인들의 Utopia 상이 품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桃花源記·序》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1) 秦나라 太元 때에 武陵 이란 곳에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냇물을 따라 가다가 그만 길을 잃고 방향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는데, 홀연히 복숭아꽃이 만개한 숲을 만나게 되었다. 냇물의 양편 언덕에는 수백 보를 가도 잡목이 보이지 않고 오직 향기로운 들꽃들만이 산뜻하고 아름다웠으며, 지는 꽃잎들이 펄펄 날리고 있었다. 어부는 몹시 이상하게 생각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숲이 다하는데 까지 가보려 하였다. 숲이 다 한 곳은 바로 냇물의 근원지로서 이내 산이 하나 나타났다. 산에는 조그만 동굴이 있었으며 동굴로부터 어렴풋한 광선 같은 것이 느껴졌다. (晉太元中, 武陵人捕漁爲業 緣溪行 忘路之遠近. 忽逢桃花林. 夾岸數百步, 中無雜樹. 芳草鮮美, 落英繽紛. 漁人甚異之, 復前行欲窮其林, 林盡水源, 便得一山. 山有小口, 髣髴若有光.)
- 2) 어부는 배를 버려두고서 동굴로 들어갔다. 동굴은 아주 좁아서 겨우 한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였으나, 다시 수십 보를 걸어 들어가자 갑자기 활짝 트이었다. 땅은 넓고 평평하였으며 집들은 당당하고 훌륭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좋은 논밭과 아름다운 연못, 뽕나무며 대나무도 있었다. 밭 사이로 길은 사방으로 잘 뚫려있었고, 닭이 울고 개가 짖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그 사이를 남녀들이 오가며 밭갈이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옷차림은 모두 외계인들 같은 차림을 하고 있었고, 노인과 아이들은 서로 어울려 화기에애하게 즐기고 있었다. 어부가 자초지종을 말하자 자기 집으로 들기를 청하여 닭을 잡고 밥을 지어 술상을 차려내었다. 어부의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 이것저것 캐물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선대에 秦나라 난

을 피하여 처자와 마을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아름다운 경계에 들어왔으나, 다시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으므로 마침내 외부 사람과는 간격이 생기게 된 것이라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묻기를 “지금은 어느 세상이요?”하였다. 漢이 있었던 것을 몰랐으니 魏晉을 모르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어부가 일일이 알고 있는 바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자 모두 놀라며 탄식하였다. 나머지 사람들도 각각 자기들 집으로 가기를 청하였으며, 모두 술과 음식을 내놓았다. 이렇게 며칠을 묵은 다음 어부는 작별을 고하였다. 그러자 누군가가 말하기를, “바깥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소.”하였다.(便舍船從入口, 初極狹, 纔通人, 復行數十步, 豁然開朗, 土地平曠, 屋舍儼然, 有良田美池桑竹之屬, 阡陌交通, 雞犬相聞, 其中往來種作, 男女衣著, 悉如外人, 黃髮垂髫, 并怡然自樂, 見漁人乃大驚, 問所從來, 具答之, 便要還家, 設酒殺雞, 煙火作食, 村中聞有此人, 咸來問訊, 自云, “先世避秦時亂, 率妻子邑人, 來此絕境不復出焉, 遂與外人間隔.” 問, “今是何世.” 乃不知有漢, 無論魏晉, 此人一一爲具言所聞, 皆歎惋, 余人各復延至其家, 皆出酒食, 停數日辭去, 此中人語云, “不足爲外人道也”)

- 3) 어부는 동굴 밖으로 나오자 배를 찾아내었다. 그리고는 이전의 길을 더듬어 내려오면서 곳곳에 표지를 해놓았다. 고을에 당도한 어부는 이 사실을 태수에게 낱말이 씌하였다. 태수는 즉시 사람을 파견하여 그가 표지해 놓았다는 곳을 찾아보았으나, 마침내 헤매다가 길을 잃고 다시는 그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既出, 得其船, 便扶向路處處誌之, 及郡下詣太守, 說如此, 太守即遣人隨其往, 尋向所誌, 遂迷不復得路)
- 4) 南陽에 사는 劉子驥라는 사람은 고상한 선비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기뻐하며 그 곳에 갈 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이루지 못하고 도중에 병으로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마침내 그 길을 묻는 사람조차 없게 되었다.(南陽劉子驥高尚士也, 聞之, 欣然規往, 未果, 尋病終, 後遂無問津者.)

위 《桃花源記·序》에 나오는 내용은 구성상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즉 처음부터 “어렵듯한 광선 같은 것이 느껴졌다(髣髴若有光)”까지가 1단계로 동굴의 입구를 찾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어부는 배를 버려두고서(便舍船)”에서부터 “바깥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소(不足

爲外人道也).”까지가 2단계로 동굴 속 이상향 즉 무릉도원에서의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 분야로 이 글의 중심 되는 부분이다. 또한 “어부는 동굴 밖으로 나오자 배를 찾아내었다(既出, 得其船)”에서부터 “마침내 헤매다가 길을 잃고 다시는 그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遂迷不復得路)”까지가 3단계로 동굴을 빠져나와 다시 그 곳을 찾아 나섰으나 못 찾았다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고, “南陽에 사는 劉子驥라는 사람은 고상한 선비였다(南陽劉子驥高尚士也)”에서부터 끝까지가 4단계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설화의 사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단계인 “냇물을 따라 가다가(緣溪行)” - “길을 잃고 방향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는데(忘路之遠近)” - “홀연히 복숭아꽃이 만개한 숲을 만나(忽逢桃花林)” - “숲이 다 한 곳에 있는 냇물의 근원지(林盡水源)”로의 진행에서, 어부는 물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去) 것이 아니고, 물을 거슬러(歸) 그 근원에 도착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원형으로 복귀(歸)함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이 설화에서 말하는 물이란 모성적인 원형 상징(Mother Archetype)⁴⁾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숲이 다한 곳에 있는 냇물의 근원지(林盡水源)”로 거슬러 올라가는 행위란, 바로 다름 아닌 모태로 돌아가고자(歸)하는 욕망을 표현한 것이다. 숲을 헤치며 水源을 찾아가는 행위란 다름 아니라, 바로 여성의 질을 찾아가는 행위가 형상화된 것이다.

“길의 원근을 잊어 버렸다(忘路之遠近)”는 행위는 바로 Ecstasy 상태에 빠졌음을 나타낸다. 이 忘(Ecstasy)의 상태에 빠지자마자 홀연히(忽) 仙界(桃花林)가 나타난다. 무속에서 접신의 상태에 빠지면(忘) 바로(忽) 성스러운 神의 세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 성스러운 神界를 이 작품에서는 “잡된 나무가 없고 오직 방초만이 산뜻하고 아름다우며 지는 꽃잎 펄펄 날리는 상태(中無雜樹, 芳草鮮美, 落英繽紛)”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복숭아꽃(桃花)란 도교에서 신성시 되는

4) 물은 비 뱀 등과 더불어 신화비평에서 여성성의 상징으로 본다.

꽃이다. 桃花林을 만났다는 것은 바로 仙界로 들어갔다는 뜻이 된다.

2단계는 “산에 하나의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山有小口)” 그 곳으로 들어갔다는 언급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고 있다. 모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극히 좁아 겨우 한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初極狹 纔通人)”라는 언급은 바로 여성의 질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입구란 바로 俗의 세계(바깥세계)에서 聖의 세계(자궁)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는 또한 어려운 곤란을 통과해야(‘좁은’ 입구라는 곤란을 극복하여 통과해야) 이상향(모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성스러운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고 극복해야할 하나의 ‘통과의례’를 상징하고 있기도 하다.

그 입구에 “마치 빛이 있는 것 같다(髣髴若有光)”라는 언급은 그 입구 안에 이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 입구를 통과하니 “갑자기 활짝 트이며(豁然開朗)” 넓은 곳이 나오니, 이가 바로 이상향 즉 모태인 것이다. 이 이상향에서는 사람들이 분노불사하고 있다. 秦나라 때의 사람들이 늙지도 죽지도 않으며 아직 살고 있는 것이다. 이 聖界의 묘사는 《老子》 18장에서 老子가 그린 小國寡民의 유토피아상과 매우 흡사하다.

중국인들이 그리는 이상적인 사회를 “땅은 넓고 평평하였으며(土地平曠)”에서부터 “화기에애하게 즐기고 있었다(并泰然自樂)”까지 묘사하고 있다. 武陵桃園의 경계는 “술상 차리고 닭 잡는(設酒殺鷄)” 그리고 “불 때서 밥하는(煙火作食)하는 인간의 일상이 수용된 경계, 객이 찾아오면 “술과 음식을 내어놓고(出酒食)” 환대하는 接賓客의 美習이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인간의 경계이다. 또한 “노인과 아이들(黃髮垂髫)”이다 같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화기에애하게 즐기고 있는(泰然自樂)” 일체감을 드러낸 경계이다. 이 別有天地는 “외부 사람과는 간격이 생기게 되어(與外人間隔)” 외부의 속된 세계와 단절된 사회이며, 전쟁을 혐오하는 “秦나라 때의 난을 피하여(避秦時亂)” 온 사람들만이 모여 사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곳이다. 한마디로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小國寡民의 자급자족하는 소박하고

안락한 농촌 상을,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보고 있는 것이다.

모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은, 모태로부터 얼마 벗어나지 못한 嬰兒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욕망을 낳게 된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영아로 복귀하라고 외치고 있다. 또한 예수는 <마태복음>에서 어린이 같아야 천국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에덴신화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발가벗은 부끄러움을 알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그들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도 몰랐으며 또한 벗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랐다는 이야기가 된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도 모르고 벗어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상태란, 바로 영아(어린이) 상태를 뜻한다. 에덴동산(이상향)이란 바로 이런 어린이가 같은 심성을 가진 존재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도덕경》에서 노자는 小國寡民으로 돌아가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小國寡民이란 인간의 삶에 비유하면 바로 영아(어린이) 상태를 뜻한다. 소박한 원시 사회인 소국과 민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는, 노자가 영아로 복귀하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의미인 것이다. 인간은 가능하면 모태 속으로 완전히 복귀하기를 원했으며,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모태와 가장 가까운 영아(小國寡民) 상태로까지는 복귀하고 싶은 것이다.

3단계는 동굴 밖으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武陵桃園 사람이 “외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不足爲外人道)” 부탁을 어기고, 돌아오는 길을 표시하고 또한 돌아와서 이 사실을 태수에게 알린다. 그가 무릉도원으로 들어갈 때 배를 버려야만(舍船) 들어갈 수 있었다. 여기서 배란 바로 인간세계에서 만들어진 俗된 문명의 상징물로 쓰였다. 속을 버려야만 성스러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그가 다시 속된 지상의 세계에 돌아올 때는 이 속의 상징물인 “배를 타고(得其船)” 돌아온다. 그가 돌아와 태수에게 알리니, 이에 태수가 사람을 보내어 그 무릉도원을 찾았으나 “마침내 헤메다가 길을 잃고 다시는 그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遂不復得路).”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무릉도원을 聖化하는 작업이다. 만약 무릉도원이 태수가 파견한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그 무릉도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신비스럽고 성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무릉도원이 아닌 것이다.

4단계는 이 설화에서 거의 사족에 불과한 것으로, 이 무릉도원을 聖化하려는 목적에서 쓴 것으로 보인다. 고상한 南陽 劉子驥조차도 무릉도원을 찾지 못하고 죽었다는 언급은, 일반인들은 전혀 찾을 수 없는 곳이란 암시가 숨어 있다. 이 이후 무릉도원을 다시는 “길을 묻는 사람조차도 없는(無問津者)”의 단절된 세계가 되게 함으로써, 영원한 인간들의 고향(Mother Land)으로 항상 그리워하는 이상향으로 남기고 있다.

중국인들의 이상향인 “달리 하늘과 땅이 있으니 인간세계가 아니다(別有天地非人間)”라는 무릉도원이란 바로 다른 어떤 모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도화원기》라는 작품은 그 모태로 복귀하려는 母胎復歸의 원초적인 욕망을 그린 것이다. 모태로 복귀하고자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 중국인들로 하여금 이런 무릉도원이라는 이상향을 만들게 하였고, 또한 그 무릉도원을 항상 그리며 돌아가고 싶어 하게 했던 것이다.

《桃花源記》가 출현한 東晉 시기는 文士들 사이에서 玄理를 논하고 清談을 즐기던 풍조가 성행하고 있었다. 자연으로 복귀하려는 현실도피적인 경향으로 흘러 자못 염세적인 풍조마저 팽배하여, 죽림을 찾는 文士들이 날로 늘어가는 시기였다. 당시 관리로 출세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고도의 유가적 소양을 갖추어야 했다. 그러나 관계로의 출세를 못한 사람이나 관계로 나갔다가 물러왔던 사람들은 당시의 정치를 속되다고 여기고, 그들은 성스럽게 현묘한 玄理나 논하고 清談을 나누는 일이 많아졌다. 그들은 속된 세상을 벗어나 자연에서 정결하고 성스럽게 신선처럼 살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신선사상이 관계로 진출하지 못한 사람들을 매료시킨 당시에, 이런 탈세속적인 《桃花源記》의 내용은 당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기 충분하였다. 더욱이 이 《桃花源記》의 내용이 志怪小說集 《搜神後記》에 수록되면서, 무릉도원의 이야기는 마치 민간 전설적인 성격을

떠며 세상 속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이 《도화원기》의 출현은 그 이후 1500년 간 중국인들의 의식 밑바닥에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가상의 이상세계를 구축시켜 놓은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무릉도원의 경계는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소망스러운 이상향의 정서로써,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환상과 꿈을 안겨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소설적 체재로는 물론 수많은 시인들의 낭만적 시심을 자극시키는 무의식적 정서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시인들이 무릉도원을 노래한 시를 짓게 된다. 그 중 몇 작품을 들어보면: 다음은 唐나라 시인 張旭의 <桃花谿> 이란 작품이다

은은히 (복숭아꽃) 날리고 다리에 들안개 피는데,	隱隱飛橋隔野煙,
石磯의 서쪽 구렁에서 어선을 묻는도다.	石磯西畔問漁船.
복숭아꽃이 모두 날마다 물 따라 흐르는데,	桃花盡日隨流水,
동굴은 맑은 계곡 어느 곳에 있느냐?	洞在清谿何處邊.

중국인의 이상향 무릉도원에 대한 張旭 자신의 願望이 잘 나타나 있다. 다음은 당나라 시인 王維의 <田園樂> 이란 작품이다

마름 캐며 물 건너는데 머리엔 바람 급하며,	採菱渡頭風急,
지팡이 잡고 있는데 마을 서쪽에 해 지는구나.	策杖村西日斜.
복숭아나무 단 옆의 어부	杏樹壇邊漁父,
복숭아 꽃 水源 안의 사람인가보다.	桃花源裏人家

위 두 작품을 보면 중국인들은 이상향인 무릉도원이 서쪽에 있다고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구인들이 동방(Orient)에 이상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판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서쪽에 이상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그들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중요한 모든 강(황하, 양자강)은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고대 모든 문명(스키타이문명, 철기문명 등)이 서쪽 유목

민족들이 동쪽인 중국으로 전파했다. 심지어 불교도 서역 인도로부터 전파되어 왔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항상 서쪽에 모든 것의 근원이 있다고 믿었고 서쪽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서쪽에 대한 관심이 비단길을 뚫은 근본 원인이며 《서유기》를 쓴 근본 원인인 것이다. 서왕모가 산다고 여겨진 신화적 산인 곤륜산도 서쪽에 있다고 믿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서쪽에 있다는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중국인들의 이상향 인 무릉도원 역시 서쪽에 있다고 믿게 만든 것이다.

“別有天地非人間”이란 시구로 인구에 회자되는 그 유명한 李白의 <山中問答>을 감상해 보자.

나에게 무슨 뜻으로 碧山에 사느냐고 묻는다면,	問余何意棲碧山,
웃으며 답하지 않으니 마음 스스로 한가롭다.	笑而不答心自閑.
복숭아꽃 흐르는 물 따라 아득히 가면,	桃花流水杳然去,
달리 하늘과 땅이 있으니 인간세상이 아니로다.	別有天地非人間.

이들 작품들에 나타난 정서들은, 모두 무릉도원에의 향수와 願望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유지기와 王安石의 시 작품에는 아예 <桃源行>이란 제명을 단 시도 있다. 유지기는 그 시에서 “仙家에 한번 나가니 그 종적으로 찾을 수 없고, 지금까지 강물만 흐르고 산만 겹겹이 쌓여 있다.(仙家一出尋無踪, 至今流水山重重)”라 하여 무릉도원은 이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고 슬퍼하고 있다. 왕안석은 자신의 시에서 “(무릉도원 안의 사람들의) 자손들이 자라 이미 세상과 격해 있고, 비록 (그 안에) 父子 관계는 있으나 君臣 관계는 없구나(兒孫生長與世隔, 雖有父子無君臣).”라고 읊어 소박하고 안락한 원시 농경사회를 그린 무릉도원을 願望하고 있다.

결국 도연명 내면의 개인적인 願望의 세계였던 무릉도원의 假構的 경계는, 이치람 육조시대는 물론 당 송을 거치는 동안, 중국인들이 동경하는 Utopia의 한 전형으로 그 자리를 잡아갔으며, 나아가 오늘날까지도 중국인들의 의식 깊숙한 곳에 ‘유토피아는 무릉도원’이라는 전형을 남겼던 것이다.

IV. 《枕中記》 분석

《枕中記》는 沈既濟가 편찬한 당 전기이다. 심기제(750?~800)는 吳人이며 일설에는 吳興 武康人이라 한다. 당 현종 天寶 연간부터 덕종 貞元 년간에 활동했으며, 경사에 통달하여 建中 初(780) 제상 楊素의 추천으로 左拾遺에 임명되었다지만, 그 뒤 양소가 죄를 지어 죽게 되자 그 다음 해 處州司戶參軍으로 좌천되었다. 그 후 조정에 복권되어 禮部員外郎으로 생을 마쳤는데, 《新唐書》의 그의 傳이 있고, 그의 저서로는 《建中寶錄》 10권이 전한다. 그의 전기 작품으로 《枕中記》와 《任氏傳》이 있다. 이 작품은 삶의 허무함을 도가사상으로 조명한 걸작으로 《南柯太守傳》과 더불어 후대에 많이 알려진 작품이다. 이 작품을 일명 《黃梁一炊之夢》(기장밥 한 끼 짓는 사이의 꿈) 혹은 《邯鄲夢》이라고도 한다.

그 주요 줄거리는 젊은 盧生이 객사에서 우연히 만난 도사 呂翁에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데, 이에 여옹이 빌려준 베개를 베고 잠시 낮잠을 자다가 꿈에 베개 구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안에서 그는 고관의 딸과 결혼하고 승승장구 입신출세하여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모략에 관직에 쫓겨나고 벌을 받는데, 요행히 죽음을 면하고 다시 벼슬길에 올라 여생을 안락하게 살다가 죽는다. 이렇듯 부귀영화를 누린 노생이 잠에서 깨어나니 아직 솥에 안친 기장밥도 아직 익지 않았다. 이에 노생은 인생이란 한바탕의 봄 꿈(一場春夢)처럼 덧없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이다.

《침중기》의 내용은 크게 3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단락은 노생이 객사에서 도사 여옹을 만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부분이고, 둘째 단락은 여옹이 빌려준 청자 베개를 베고 잠이 들다 베개 구멍(口)으로 들어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화려한 체험을 한 부분으로 본 소설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또한 본 소설의 중심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베개 구멍 안이 유토피아 상태로 인식 된 것인데, 이는 베개 구멍 안

이 항상 그리워하며 돌아가야 할 모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이 꿈에서 깨어나니 아직 기장도 털 익었다고 하며 삶이란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이다. 노생이 도사 여옹과 만나 신세를 한탄하는 첫째 단락은 본 소설의 주요 부분인 베개 구멍(口)으로 들어가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입 분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셋째 단락은 베개 구멍 속(모태 속)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화려한 체험을 겪은 후 그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다는 이 소설의 결론을 이야기한 분야이다.

첫째 단락에서 노생은 객사에서 우연히 만난 도사 여옹에게 자신의 불우함을 거침없이 쏟아 놓는다.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여옹이 노생에게 “그대의 모습에서 어떤 고초나 몸의 병도 없이 보였고, 또한 조금 전까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왜 갑자기 구차한 이야기를 늘어놓느냐?(觀子形體, 無苦無恙, 談諧方適, 而歎其困者, 何也?)”라고 물으니 노생은 대장부로 태어나 出將入相으로 부귀공명을 누리고 번성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자신은 학문도 했고 다른 방면의 재주도 많은데 고관자리 얻지 못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힘들게 농사나 짓고 있다고 신세를 거침없이 한탄한다. 이에 여옹은 “그대는 나의 베개를 베어라. 그러면 마땅히 그대로 하여금 뜻과 같이 영화롭게 하여 줄 것이다.(子枕吾枕, 當令子榮適如志)”라고 하며, 자신의 청자 베개를 내어주었다. 이에 노생이 그 베개를 베고 베개 양쪽 끝의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모태(자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단락에서 노생은 이 베개 구멍 안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온갖 부귀영화와 경험을 하게 된다. 그 속에서 당대의 명문거족의 딸인 清河崔氏女를 아내로 맞고 진사에 급제하며, 정부의 요직이란 요직은 모조리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차지한다. 出將入相하여 큰 공을 세우기도 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출세를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인생이 탄탄대로를 가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베개 구멍 안의 삶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인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동렬의 시기와 무고로 잠깐 유배되는 시련을 겪지만, 이내 모함으로 밝혀져 다시 천자의 부름을 받고 입궐하여 큰 벼슬을 하게 된다. 그 후 천자의 각별한 사랑을 계속 받게 되고 그의 관록이 승승장구 마침내 재상에 까지 오르며, 그의 다섯 아들도 모두 크게 출세하고 그들의 처족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당대 천하의 명족이 된다.

중간에 이런 약간의 시련 묘사는 《침중기》의 작가가 의도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방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만 단지 묘사하게 되면, 이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무미건조한 느낌을 주어 재미도 없게 만들며 또한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느낌을 받게 만들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약간의 시련 묘사가 없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둘째 단락은 노생이 인간이 생각해 낼 수 있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입신양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베개 구멍 속의 삶 그것은 당시 인간들이 상상해낼 수 있는 이상적인 삶인 것이다. 이는 인간들에게 항상 이상향으로 인식되어진 모태가 베개 구멍 속에 투영되어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단락은 노생이 늙고 병들어 관직을 사양하지만 천자는 그의 공로를 치하하며 만류한다. 노생은 이에 죽을 때까지 관직이 있으며 장수하다 죽는 것으로 그는 꿈에 깨어나게 된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베개 구멍(이상향) 밖인 현실세계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그의 휘황찬란한 꿈의 체험도 삶기 시작한 기장에 아직 익지도 않은 짧은 순간에 불과했다. 이에 노생은 인생이란 허무한 것으로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간들이 추구하는 부귀와 영화는 한낱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작품이 마쳐지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모태복귀의 신화를 소재로 삼아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여 도가 도교의 인생관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枕中記》는 이후 인구에 많이 회자되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모방한 작품들이 속출하고 있다. 송 화본으로 《黃梁夢》과 《青瑣高議》前集

권2에 실린 <慈雲記>, 《聊齋志異》 권4의 <續黃梁>, 권8의 <顧生> 등이 있고, 元明시대 잡극으로 《黃梁夢》, 《呂翁三化邯鄲店》, 명 잡극으로 谷子敬의 《邯鄲道盧生枕中記》, 車任遠의 《邯鄲夢》, 명 전기로 湯顯祖의 《邯鄲記》 등이 있다.

V. 《南柯太守傳》 분석

《南柯太守傳》을 지은 李公佐(770~850)는 자는 顯蒙이며 隴西(지금의 감숙성) 사람이다. 덕종 때 진사에 올랐고 현종 元和(806~820) 연대에 江淮從事 屬官을 지냈다. 그러나 이내 관직에서 물러나 남쪽 각지를 유람하다가, 무종 會昌(841~846) 연대에 揚州錄事가 되었으나, 선종 大中 2년(848년)에 죄에 연좌되어 얼마 안 있어 죽었다

이 작품은 삶의 허무함을 도가사상으로 조명한 걸작으로 《枕中記》과 더불어 후대에 많이 알려진 작품이다. 이 작품을 일명 《南柯一夢》이라고도 한다. 본 작품은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東平의 淳于棼이란 호기로운 遊俠之士가 길을 가다가 피곤하여 槐나무에 기대어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槐나무 개미구멍(穴) 속으로 들어가 개미나라인 槐安國 왕의 駙馬가 되어 온갖 부귀영화와 복록을 누린다. 그 후 다시 南柯君의 태수가 되어 선정을 펴고 많은 업적을 쌓으며 온갖 부귀영화와 공명을 누리게 된다. 이 분야의 묘사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檀羅國과의 전쟁에서 패해 친구였던 司憲 周弁이 죽고 아내인 공주마저도 죽고 만다. 이때 순우분은 태수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끝내는 괴안국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동시에 잠에서 깨어나니 그 때는 아직도 그를 데려다 준 친구가 곁상에 앉아서 발을 씻고 있었다. 그들에게 꿈에서의 체험을 들려주자 괴나무 밑의 개미구멍(穴)을 가리키며 꿈속에서 순우분이 들어갔던 곳이라 알려준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확인해보니 정말 그 모양과 구조가 그가 경험한 괴안국과 남가군의 형상과 같았다. 이에 순우분

은 인생의 무상을 깨닫고 道門에 귀의하고 주색을 끊게 된다. 마지막 傳에 이공좌가 貞元 18년(802년) 淮蒲에서 우연히 순우분의 초상화를 얻게 되어 그의 행적으로 조사해보니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하며, 위 설화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첫째 단락은 처음부터 괴안국 문 앞에 이르는 부분까지인데, 순우분은 의협적인 인물로 술을 좋아하고 행동거지에 전혀 구애됨이 없었는데, 그러나 그 나쁜 술버릇 때문에 상관에게 미움을 사 쫓겨나기도 했으나 그는 그 술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어느 날 심하게 취하여 두 친구가 그를 부축하여 집에 돌아와 잤는데, 꿈속에 붉은 옷을 입은 사자가 나타나 그를 데리고 괴안국에 가는 내용까지로 되어 있다. 괴안국 즉 개미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이전까지의 상황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분야라 하겠다. 위 내용이 《침중기》의 첫째 단락과 다른 것은 《침중기》에서는 노생이 자신의 불운과 신세 한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남가태수전》에서의 순우분은 자신의 불운과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한 내용은 없고 단지 나쁜 술버릇과 불손한 태도로 말미암아 망신당하고 쫓겨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하겠다. 노생과 달리 그는 돈이 많으며, 그의 주위에 그와 성격이 비슷한 好俠漢들이 모여 술 마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노생처럼 관직에 연연하거나 부귀영화를 꿈꾸는 자가 아니었다.

둘째 단락에서는 개미구멍(穴)으로 들어가 괴안국에 이르러 순우분은 右丞相을 안내를 받게 되는데, 괴안국 왕의 둘째 딸 瑤芳을 아내로 맞아 부마가 되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 뒤 괴안국 南柯君의 태수가 되어 주변과 전자회의 보좌로 선정을 펴 그의 백성들은 그의 공덕비와 사당을 미리 세워놓고 신을 떠받들었다. 여기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내용과 여러 가지 공덕을 이루는 내용이 작품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이루며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개미구멍(穴) 안에서의 순우분의 삶이란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그 개미구멍(穴) 안은 바로 인간들이 항상 이상적인 세계로 여겨 돌아가고자 한 모태가 형상화된 것이다.

셋째 단락은 이런 부귀영화와 호사를 누리다가 나중에 檀蘿國의 침략을 막지 못해 태수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또한 주변의 모함으로 고향으로 추방되게 되는데, 이에 다시 붉은 옷을 입은 사자들이 나타나 그를 호송하게 되니 비로소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되돌아오게 된다. 태수직에서 물러나고 고향으로 추방되는 내용으로 된 이 단락은 《남가태수전》의 작가가 순우분을 현실로 되돌아가게 만들려는 의도로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삽입이 있다 하더라도 개미구멍(穴) 안에서의 순우분의 대체적인 삶이 일반 인간들이 그리는 이상적인 상태라는 것에 큰 영향은 없다고 여겨진다. 개미구멍(穴) 안이란 바로 유토피아인 모태(자궁)가 형상화된 것이다.

넷째 단락은 잠에서 깨어나니 자기 집 하인은 아직도 마당을 쓸고 있고, 자신을 부축해 준 두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말에게 사료를 먹이고 발을 씻고 있는 짧은 순간이었다. 이에 꿈속에서의 한 평생이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들에게 자신이 꿈속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니, 친구들은 피나무 밑에 있는 개미구멍이 바로 순우분이 꿈속에서 들어간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그 곳을 하인들을 시켜 파보니 정말 자신의 경험했던 괴안국의 모험이 그대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부분 즉 도끼로 파서 발견한 개미나라의 형상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상세하여, 자신이 꿈속에서 겪은 괴안국의 수도, 태수로서 다스렸던 남가군, 사냥을 즐겼던 靈龜山, 아내의 무덤이 있는 盤龍江, 전쟁을 했던 檀蘿國의 순서대로 차례로 확인하여 자신의 꿈속에서의 삶이 절대 거짓이 아니고 실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그는 인생이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색을 끊고 道門에 귀의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남가태수전》은 《침중기》와 더불어 그 이후에도 인구에 많이 회자되었는데, 그래서 이 《남가태수전》을 모방한 작품들이 후대에 속출하게 된다. 송 화본인 《大槐王》, 명 잡극인 車任遠의 《南柯夢》, 명 전기인 湯顯祖의 《南柯記》와 청대 작품인 《聊齋志異》 권5에 실린 <蓮花公主>가 그것이다.

VI. 결 어

인간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다. 고로 우리 인간들은 어머니 모태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원초적 본능을 항상 지니고 있다. 중국인의 이상향을 그렸다고 하는 도연명의 《桃花源記》는 모태복귀의 신화를 그린 전형적인 작품이다. 복숭아 꽃잎이 흘러 내려오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산의 조그만 구멍(口)으로 들어가 別有天地非人間의 이상향 무릉도원을 만난다. 이 무릉도원은 다름 아니라 자궁 속, 즉 모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후 중국인의 이상향 무릉도원을 그린 시와 소설은 수없이 많다. 唐 傳奇 《遊仙窟》과 沈既濟의 《枕中記》 그리고 李公佐의 《南柯太守傳》 같은 작품에서도 모두 굴이나 구멍 속에 들어가 Utopia 세상을 만난다. 모두 모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 중국의 많은 소설작품들도 이 ‘洞’ 자나 ‘窟’ 자를 사용하며, 그 속에 사는 귀신들이나 신선 신녀들의 행적, 그리고 그 속에서의 신녀와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하는 《구운몽》은 남자 주인공이 동굴 속에서 열 신녀와 환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옛날 도사 방사 신선 같은 인물들이 모두 영산의 굴속에 기거하며 주로 도를 닦은 것도 모태(굴) 속에 있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장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參考文獻〉

- 《中國文學發達史》, 중화서국편집국, 대만 중화서국 1987
 《中國文學史》, 金學主, 서울 신아사, 1989
 《中國古代文學史》, 金學主, 서울 민음사 1983
 《中國詩史》, 陸侃如 馮元君, 대만 명운출판사, 1988
 《傳記小說選》, 葉楚傖 주편, 正中書局印行, 1980
 《唐人小說》, 朱沛蓮 교정, 원동도서공사 인쇄, 1983

- 《大唐六典》，唐 玄宗御撰 李林甫奉敕注，대만 문해출판사, 1984
《通典》，唐 杜佑撰，대만 신흥서국, 1985
《風俗通》，사부총간초편축본, 대만 예문인서관, 1981
《太平廣記》，대만 신흥서국, 1959
《太平御覽》，李昉, 대만 신흥서국, 1959
《抱朴子》，葛洪, 사부총간초편축본, 대만 예문인서관, 1981
《列仙子》，사부총간초편축본, 대만 예문인서관, 1981
《續仙傳》，사부총간초편축본, 대만 예문인서관, 1981
《說苑》，사부총간초편축본, 대만 예문인서관, 1981
《素女經》，이종문 옮김, 서울 다사랑, 1989
《도교대사전》 영인본, 항주 절강고적출판사, 1988
《神話 禮儀 文學》，陳柄良, 대만 연경출판사업공사, 1986
《神話與詩》，聞一多, 대만 남등문화공사, 1975

<中文提要>

人們從母胎生下來。故人們常常想要回歸母胎。這樣的現象在世界文化全般見出來。陶淵明的《桃花源記》是描寫母胎復歸神話的典型的作品。沈既濟的《枕中記》，李公佐的《南柯太守傳》等的中國小說作品都是描寫母胎復歸的慾望的。

주제어: 母胎復歸, 洞穴文化, 《桃花源記》, 子宮, 聖의 世界